

씨실과 날실로 촘촘하게 엮은 '라이프'

의료계 부조리·명품 배우 호평... '비밀의 숲' 연상케 하는 스케일

반쯤 누운 자세로 오징어를 뜯으며 보다가는 어느 순간 이야기로부터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를 볼 때만큼은 끈은 자세로 앉아 오감을 집중하는 편이 좋겠다.

올해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tvN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가 또 한 번 씨실과 날실로 촘촘하게 엮어낸 작품, JTBC '라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이번에는 병원이 배경인데, 인물 간 두뇌 싸움이나 사건 스케일이 검찰을 배경으로 삼은 '비밀의 숲' 못지않다.

◇ 의료계 부조리 전격 해부...추리요소와 재치 더한 스토리

'라이프'는 의학 드라마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연애담을 그리지도, 의사들 간 승진 등 권력 쟁취를 위한 싸움을 묘사하지도 않는다.

'라이프' 무대인 상국대병원은 병원장 이보훈(천호진 분)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부원장 김태상(문성근)의 계략 아래 '전력 경영인' 구승효(조승우)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실적 제일주의' 구승효는 남다른 지식 습득력과 치밀한 준비능력을 갖춘 인물이지만, 여러 가지 의료용 가위를 보고 "뛰어, 이발소 가위?"라고 물을 만큼 의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그런 그는 상국대병원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낙산의료원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과로 소아 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곳들을 짚어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 단순히 드라마 속 '픽션'으로 보기가 어렵다. 의료계에서 이윤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봐왔기 때문이다.

또 환자 정보를 생명보험사에 넘겨버리고, 시민 의료권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을 전형적인 사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같이 없애려고 하는 구승효가 있는가 하면 이보훈이나 주경문(유재명)처럼 의료의 본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다. 이것 역시 의료계 현실이다.

이렇듯 이수연 작가는 치밀한 취재를 통해 지금껏 국내 의학 드라마들이 짙어 내지 못한 부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비밀의 숲'처럼 주요 등장인물이 죽으면서 시작하고, 누가 범인인지

를 추리해가는 재미를 더했다. 전작을 보면 시청자는 아마도 마지막까지 머리를 열심히 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간간히 보이는 코믹 요소는 한껏 수축한 근육을 잠시 이완할 수 있게 돕는다.

◇ '5분 카리스마' 조승우, '진짜 응급의' 이동욱, 명품 조연

탄탄한 스토리를 화려하게 풀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배우들이다.

특히 '비밀의 숲'에서 활시목 검사로 열연한 조승우는 이번에 구승효로 변신



해 또 다른 독보적인 캐릭터를 창조해냈다.

특히 1회에서 거의 마지막에 5분 등장한 것만으로도 극 전체를 압도해버린 모습에서 그만의 카리스마를 실감할 수 있었다.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 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 씨는 "공인으로 5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명예를 걸고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씨를 응원하는 이진욱, 김강우 특별출연

연출뉴스

지코 '솔메이트' 음원차트 싹쓸이

아이유 피쳐링 '음원 강자' 파워

블랙비 레퍼 지코(본명 우지호·26)의 새 싱글 '솔메이트' (SoulMate)가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공개된 '솔메이트'는 아이유(본명 이지은·25)가 피쳐링한 곡으로 멜론, 지니뮤직, 율레뮤직,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벅스, 소리바다 등 7개 실시간차트 1위를 석권했다.

특히 음원 순위 조작 의혹이 인 가운데

서도 2주간 각종 차트 정상을 지킨 송의 '웨이 백홈' (Way Back Home)을 제치며 '음원 강자' 조합의 힘을 보여줬다.

'솔메이트'는 지코가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참여한 곡으로 트랩렛, 색소폰, 트롬본 등 리얼 악기 사운드로 채운 아날로그 감성의 편곡이 돋보인다. 지코의 음색과 나른하면서도 청아한 아이유의 보컬이 솔직담백한 가사와 어우러졌다.

가수 윤형주, 41억원 횡령 의혹 검찰 송치

부동산 개발 시행사 운영...회삿돈으로 빌라 구매 등 혐의

가수 윤형주씨(71)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1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횡령·배임 혐의로 윤 씨를 수사한 뒤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씨는 회삿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

한 배임액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 안성의 한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원 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

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공인으로 5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명예를 걸고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마마무, 콘서트 2분 만에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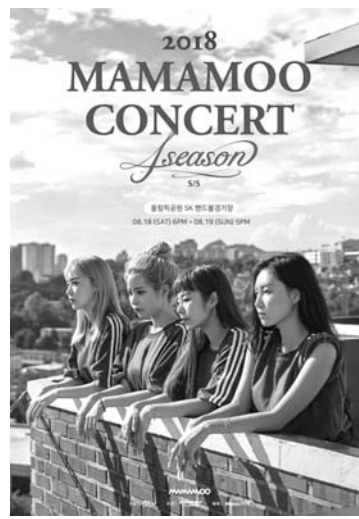
'포시즌 프로젝트' 봄·여름 무대 선사

그룹 마마무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매 시작 2분 만에 매진됐다.

지난달 31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마마무가 오는 18~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5,000석 규모로 개최하는 '포 시즌즈 S/S' 티켓이 전날 오후 8시 판매 개시 직후 다 팔렸다.

이들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한 공연 '무지컬 커튼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멤버들은 이번 공연에서 '포시즌 프로젝트'의 봄과 여름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살아있는 동물 방송 활용 행위 멈춰야"

동물권단체, tvN '식량일기' 육계 12마리 방관 주장

닭을 비롯한 닭볶음탕 재료를 직접 키우는 tvN의 예능 프로그램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 제작진이 닭을 방송 소품처럼 사용하며 데다 잡아먹히도록 방관했다는 동물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식량일기: 닭볶음탕 편 반대행동'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작진은 지금까지 닭들이 잘살고 있다고 했으나 촬영에 필요 없어진 육계 12마리를 닭농장에서 남겨 잡아먹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간 방송에서 닭장 안 닭

들은 그늘도 없는 공간에 갇혀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으며, 좁고 허술한 닭장 밖으로 나왔다가 강아지에게 물려 죽거나, 다른 닭에게 밟혀 죽는 등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대행동은 "닭이나 병아리가 죽으면 애도하는 모습을 방송에 담거나, 촬영에 필요 없어지면 닭들의 목이 비틀려 죽어 나가지도 못한 척하는 식량일기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식량일기가 방송에서 보여준 고민의 흔적들은 그저 논란을 잠

재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며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닭들의 소재를 밝히고 안전하게 입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명윤리도 없고 동

물권을 유린하는 식량일기의 다음 시리즈가 방송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tvN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소품으로 동원하는 행위를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망으로 얼룩진 부부의 추악한 파국

박해일-수애 '상류사회' 29일 개봉...이진욱·김강우 특별출연

"수애씨는 파워풀한 단거리 육상선수 같아요. 연기와 실제 모습도 목표를 정하면 앞으로 내달리는 성격이죠."(박해일)

"박해일 선배는 연기를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는 완벽한 분이예요. 귀와 마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촬영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분이죠."(수애)

영화 '상류사회'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 박해일(41)과 수애(38)는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시네마컨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시너지가 너무 좋

았다"며 서로 치켜세웠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각자의 육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해일은 경제학 교수이자 총망받는 정치 신인 장태준을, 수애는 야망으로 가득 찬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을 연기했다. 태준은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입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고, 수연은 미술관 재개관전을 통해 관광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수연의 미술품 거래와 태준의 선거 출마 뒤에 어두운 거래

가 있었다 것이 밝혀지고, 두 사람의 위기에 처한다.

박해일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이야기의 힘이 있었다"면서 "장태준은 여태껏 해본 역할 가운데 가장 야망이 강한 캐릭터여서 호기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준은 순수한 교수였다가 정치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 변화무쌍한 캐릭터"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애는 "오수연은 성공의 육망을 좇



는 인물로, 남편이 육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동지를 만난 듯 기뻐하지만, 오히려 그게 밧이 돼서 파국을 맞는 역동적인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국가대표2' (2016)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수애는 "이전 작품들

에서는 주로 내면 연기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외적인 이미지에도 신경을 썼다"면서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긴 머리로 단발로 과감하게 잘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부부 연기는 수애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박해일은 "작년 봄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만난 수애씨가 이 영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귀띔했다. 수애는 "(박해일) 선배와 꼭 한번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육망을 드러냈다"며 웃었다.

영화 '인터뷰' (2000), '주홍글씨' (2004)에 이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변혁 감독은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4~5년이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 감독은 "그간 상류사회를 다룬 영화는 많았지만, 이 작품은 상류사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심을 드러내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재문이 돈과 예술을 탐닉하는 재벌가 회장으로, 라미란이 우아하고 교만한 미술관 관장으로 출연했다. 이진욱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김강우는 비열한 사업가 역으로 특별 출연했다.